



도 담 도 담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 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념

흔히 성폭력이라고 하면 낯선 사람이 피해자를 불시에 폭행 또는 협박해서 강간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이처럼 **성폭력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성폭력 통념'** 이라고 합니다.

성폭력은 명백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발생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 힘 또는 권력의 차이, 상황, 맥락 등에 따라 다양한 피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념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것이 성폭력 고정관념, 통념

- § 여자가 모르는 남자의 차에 타거나 모텔이 같이 가서 성폭행을 입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 §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폭행이 일어났다.
- § 피해자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 § 성폭력은 대부분 낯선 사람에게 의해서만 발생한다.
- § 여성의 침묵은 YES이다.
- §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즉시 신고할 것이다.
- § 성폭력은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이다.
- §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다움' 이 있어야 한다.

◆ 고정관념과 성폭력 사례

< 모텔에 같이 갔으면 합의한 것 아닌가요? >

모텔에 같이 들어가는 행위 자체는 성적 행위에 대한 합의의 표현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모텔을 친한 친구끼리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고, 늦은 밤에 달리 갈 곳이 없어서 모텔에 갔을 수도 있고, 가해자의 위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따라갔을 수도 있고, 술에 취해서 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같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언제든지 합의를 철회하거나 성적행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모텔에 같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합의한 것으로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싫다고 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

성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싫다고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표적인 성폭력 통념 중의 하나입니다.

피해자는 개인에게 체화된 경험에 따라 피해 상황에 다르게 대응하며, 저항의 표현 방법이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항'의 이미지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모습만 떠올리는 것은 그 밖의 모든 피해자의 행동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맥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대응한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편견입니다.

< 사실이라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요? >

모든 피해자가 피해 발생 시 바로 신고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상황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기억을 왜곡하거나 피해 상황을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하거나 소속 집단의 특수성(위계 관계 등) 또는 가해자의 보복,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수사·재판 진행 절차를 모르거나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 등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신고를 포기하거나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피해자에게도 아주 힘든 결정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고려와 용기가 필요함을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던데요? >

피해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왜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성폭력 피해자가 노출 있는 옷을 입거나, 너무 당당하거나,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피해자답지 않다.' 고 말하며 피해 사실 자체를 의심하거나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피해자다움'이란 하나의 잣대로 피해자를 해석하고 의심하는 것이며 피해자를 영원히 '피해자'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다움'이란 없습니다. 피해자 개인이 더 이상 피해자임을 의식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편견의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